

히브리 고시(古詩) 번역의 문제들

-‘모세의 노래’(신 32:1-43)를 중심으로(제1부)-

김정우*

현재 신명기 안에서 ‘모세의 노래’(신 31:30; 32:44)로 전해지고 있는 신 32:1-43은 올브라이트(W. F. Albright)에 의하여 “구약성경 전권에서 가장 인상적인 종교 시”로 평가 받고 있으며,¹⁾ 오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에서 ‘서사적 시(narrative poem)’로서 오경 전체의 주제를 용해하며, 모세의 유언형식을 빌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백조의 노래’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²⁾ 우리는 이 글에서 ‘이스라엘의 고대 시’³⁾ 가운데 대표적인 시로 꼽힐 수 있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본문비평 작업과 함께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신명기 32장과 같은 고대 시를 번역하게 될 때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서론적으로 봉착하게 된다.

(1) 현재 본문을 전수해 주고 있는 고대의 역본(LXX)과 사본(사마리아 오경,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VT* 9 (1959), 329.
- 2) 마소라 필사본의 전통(Shephardic and Yemenite MSS)에 있어서도 오경의 중요한 단락에서 기억을 돕기 위한 표기를 하는 ‘여섯 개의 자음(שש הַיּוֹד) 위에 부점’을 찍는 마지막 글자가 이 시의 서문 부분인 31:28에 나타나고 있다.
- 3) 이 시의 연대추정에 대하여 크게 전기설과 후기설이 있으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후기로 보는 반면에 전자는 주전 10세기 이전까지 거슬러 가는 것으로 본다. 전기설에 대하여서는 Cassuto (1933)가 처음으로 ‘사사시대’를 저작 배경 연대로 제시하였다. U. Cassuto, “The Song of Moses (Deu 32:1-43),” *Biblical and Oriental Studies*, vol. 1 (Jerusalem: Magnes Press; Hebrew University, 1973), 41-46을 보라. 이어서 아이스펠트(Eissfeldt, 1956:271)는 주전 11세기 중엽 경으로 제시하였다(그는 이후에 주전 1070[termini post]-1020년[terminus ante quem]을 제안하였다). O. Eissfeldt, *Das Lied Moses Deuteronomium 32:1-43 und das Lehrgedicht Asaphs Psalm 78 Samt einer Analyse der Umgebung des Mose-Liedes* (Berlin: Akademie-Verlag, 1958). 올브라이트는 초기에는(1940) 주전 7세기로 설정하였으나, 이후에는 아이스펠트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338. 이후에 크로스과 프리드만은 “주전 10세기 이후 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F. Cross and D. N. Freedman, *Early Hebrew Orthography: A Study of the Epigraphic Evidence*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2), 45-60. 로벗슨은 본 시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시제 형태(yiqtol, qatal)가 병행구절 안에 나타나는 것은 우가릿 시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초기 시임을 제시하였다. D. A. Robertson,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Cambridge, Mas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72), 54. 이 시의 연대설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전체적인 토론에 대하여서는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New York: E. J. Brill, 1996), 6-98을 보라.

Qumran mss) 마소라 학파의 옛 필사본들(Aleppo codex, Leningrad codex)과 현대의 비평본들(BHL [ed. A. Dotan], BHS)에는 절과 행의 분류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필사본과 비평본에 근거하여 절과 행을 분류할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닌그라드 사본과 BHS를 따르겠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2) 우리는 히브리 시를 절(節, verse)과 행(行, line)과 구(句, colon)를 비평적으로 구분 후, 평행법을 따라 각 절에 대하여 시적인 배열을 해야 한다. 현재 신명기 32장의 본문은 한 절이 1~2행 혹은 3행(BHL, 39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행은 또한 대부분 두 구(句)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말 번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한 줄의 편집적 최소 단위를 행으로 할 것인가, 혹은 구로 할 것인가?

(3) 원문을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후, 우리는 본문의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미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은 어느 정도 단락의 구별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수사 분석을 통하여 연과 장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4) 현재 본문에는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어휘들(hapax legomenon)이 많아서 어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한 절과 행 속에 ‘접두어(prefix) 변화’와 ‘접미어(suffix)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 문제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인가?

(5) 우리는 히브리어 고대 시를 우리 말로 표현할 때 어떤 어투로 번역할 것인가? 고대 시는 고대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고어체여야 할까?⁴⁾

(6) 히브리 시를 번역할 때, ‘형식적 일치’와 ‘내용 동등’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즉, 시를 압축하여 번역할 것인가, 혹은 의미를 풀어서 번역할 것인가?⁵⁾

(7) 현대적 개념의 다양한 문장부호들, 예로서, 직접화법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할 것인가, 또한 문장 끝에 의문사나 마침표를 붙일 것인가?

(8) 최종적으로 번역이 마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4) 『송강가사』 정도의 고대성이 요청되나, 필자는 『개역』의 어투를 사용하였다. 『개역』에는 ‘ㄱ’ 발음이 많이 나와 어감에 있어서 더욱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5) 『표준』은 ‘내용동등’을 추구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불필요하게 문장을 길게 번역하고 있다.

1. 모세의 노래에 대한 필사본들 및 비평본들의 행 분류 체계

맥카시(C. McCarthy)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좋은 성서번역을 위해서는 원본에 대한 좋은 비평본이 있어야 하며, 좋은 비평본은 원문을 가능한 한 신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좋은 필사본이 있어야 한다.”⁶⁾ 현재 BHS는 레닌그라드 필사본(L)에 근거한 비평본을 제공하고 있지만, 절과 행의 시작 부분에서 대본과 매우 다른 독법과 배열을 하고 있다. 또한 레닌그라드 사본과 BHS는 절의 배열에 있어서 알레포 사본과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70인역과 쿵란 사본 역시 마소라 사본과는 다른 전통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을 위한 비평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러 필사본들과(Leningrad, Aleppo, Qumran mss), 번역본들(Samaritan Pentateuch, LXX)과 비평본(BHS, Dothan)의 절 및 행의 분류 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논문 뒤에 별첨함)

<표 1>에서 제시된 여러 필사본, 비평본, 고대역본의 차이점을 크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은 모세의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여섯 줄에 걸쳐 독특한 편집형태를 만들어 앞 단락과 구별되는 시적인 서론을 제시하고 있다(신 31:28하-31).

(2) 시의 본문 배열에 있어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두 칼럼을 따라 모두 37줄로 제시하며, 각 절의 구분점을 편집적 관점에서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알레포 사본은 두 칼럼을 따라 모두 67줄로 배열하여, 절과 행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다.⁸⁾

(3) 레닌그라드 사본과 그것을 대본으로 하는 BHS는 시 전체를 70행으로 나누

6) Carmel McCarthy, “A Diplomatic Dilemma in Deuteronomy 32,” unpublished. 이 논문은 Milltown Studies의 2004-2005년에 게재될 예정이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글을 필자에게 미리 보내어준 맥카시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7) 알레포 사본의 본문은 A. Dotan이 편집한 *Biblia Hebraica Leningradensia* (Peabody: Hendrickson, 2001)에 잘 나타난다.

8) 사마리아 오경에 있어서도 원 두루마리(Sefer Abisha, 주후12세기경)는 두 칼럼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것은 다른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그렇지만, 노래의 행은 인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10.

고 있으나, 알레포 사본과 그것을 대본으로 삼는 도탄(Dotan)은 67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4) 32:1-13절까지는 레닌그라드, 알레포, BHS가 비교적 유사한 배열과 독법을 하고 있지만, 14-39절에 있어서는 상당한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15-39절에 있어서는 BHS가 레닌그라드 사본을 문자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으며, 수많은 불일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① 레닌그라드 7c(10행)의 ‘구하라(לֹאֲשׁוּ)’는 알레포에서 같은 절 11행에 나온다.
 - ② 레닌그라드 11c(18행)의 ‘(날개를) 펴다(שָׂרָף)’는 알레포에서 같은 절 16행에 나온다.
 - ③ 레닌그라드 14c(23행)의 ‘그리고 염소(וְאֵילִים)’는 알레포에서 ‘내 아들(בְּנֵי)’이 된다(//Dotan).
 - ④ 25절에 있어서는 레닌그라드(41행)는 ‘안방(וּמְחִירִים)’, BHS는 ‘밖(מִחוּץ)’, 알레포(39행)는 ‘또한’(וְ [41-42행 포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 (5) 마지막 43절에 있어서 마소라 사본에서 2행(4구)으로 구성되나, 70인역과 쿰란 사본은 4행(8구)으로 구성되어 훨씬 길게 제시되고 있다.

2. 본문 번역

-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에서 시적 화자는 현재의 문맥에서 모세로 여겨진다. 즉 1-2절에서 ‘내 입의 말’, ‘나의 교훈’은 일차적으로 모세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앞 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낭송하라고 하시며, 또한 기록하라고 하시므로(31:21)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31:30), 궁극적으로 그의 노래와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

모세의 말씀은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으므로 그는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다.⁹⁾ 이 두 용어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서(merism),¹⁰⁾ 오경의 전체

9) ‘땅’은 여성명사로서 동사(2인칭 남성 שָׁמְעָה)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שָׁמְעָה) 이 동사를 3인칭 권유형(jussive)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반절에서는 땅이 주어가 되며, “땅은 내 입의 말을 듣기를 바란다”로 번역할 수 있다(‘Let the earth may hear...’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37.)

10) ‘하늘’과 ‘땅’은 합성어로서 성경에서 ‘온 우주’로서 ‘모든 자연현상(all natural phenomena)’을 가리키지만, 동양적 청중에게 있어서는 남성(陽)인 ‘하늘’과 여성(陰)인 ‘땅’의 조화를 이루어준다.

적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1:1과 연결되며 신명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4:26; 30:19; 31:28). 여기에서 ‘천지’는 모세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사 1:2).¹¹⁾

둘째 구에 나오는 ‘내 입의 말’은 항상 시에서 나온다(시 19:14[히 15] 잠 8:8). 번역적 관점에서 볼 때 말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내 입의 말’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내 입’을 생략할 수 있다(NJB). 그렇지만, ‘내 입의(말)’는 말의 출처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권위를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여기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2 나의 가르침이여 비처럼 내려라¹²⁾

내 말이여 이슬처럼 맺혀라.¹³⁾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채소¹⁴⁾ 위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이 절에 대한 『개역』의 번역은 전체를 명사문장으로 처리함으로써 매우 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원문을 따라 동사 문장으로 바꾸었다.¹⁵⁾ 2절은 1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수사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1절의 ‘내 입의 말’은 여기에서 ‘나의 교훈’¹⁶⁾과 ‘나의 말’로 이어지고 있다. ‘이리하여

11) ‘하늘과 땅’은 언약체결에 있어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헌과 구약성서에서 폭넓게 증인으로 등장한다.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2), 200-205. 모란은 ‘두 증인을 부르는(zweizeugenruf)’ 전통을 아카드와 우가릿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다. W. R. Moran,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Bib* 43 (1962), 317-320. 그가 볼 때 히타이트 조약의 명단에는 자연요소가 일관성 있게 나타남으로써, “조약의 의무를 모든 신적 세계와 최대한 연결 시키려고 한다. 즉, 권세를 극대화 하여, 절대적 형태로 의무를 부과한다” W. R. Moran,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320.

12) 동사형태는 ‘미완료’이지만, ‘단축명령형’의 기능을 가진다.

13) 제 2구에서 사마리아 오경은 접속사를 추가하여 wtzl로 읽음으로써, 1-2구를 연결시키고 있다 (// LXX, 페쉬타, 탈군 요나단 위경).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은 가끔 접속사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

14) 이 단어는 ‘사람과 짐승이 먹는 채소의 의미를 여기에서 가진다(창 2:5; 9:3; 신 29:22; 미 5:6; 시 105:35, HALOT).

15)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개역』).

16) ‘나의 교훈’은 ‘나의 말’과 자주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다(잠 1:7; 9:10). ‘교훈(נִפְתָּר)’은 잠언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지혜’ 용어 가운데 하나로서, ‘받다(נָפַח)’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합 3:2). 따라서 ‘교훈’은 마음으로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주의하여 받아야 한다. J. H. Tigay, *Deuteronomy, JPS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99.) 이 단어는 후에 ‘토라’와 밀접하게 이어진다(נָתַן ‘가르치다’). ‘교훈’은 삶에 대한 ‘근본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시 103:7).

하늘’(1절)에서 ‘비’가 내리며(2절), ‘이슬’(2절)은 ‘땅’(1절)을 뒤덮어 준다.¹⁷⁾

2절은 네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구의 ‘비(מָטָר)’와 ‘이슬(טַל)’은 3, 4구의 ‘단비(טַעֲמִירִים)’와 ‘소나기(רַבִּיבִים)’(신 32:2; 시 65:10; 72:6; 렘 3:3; 14:22; 미 5:7)와 평행을 이루며,¹⁸⁾ 특히 단수(1행)와 복수(2행)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비와 연관된 네 개의 단어의 의미에 대한 우리말 번역들을 보라.

‘비’, ‘이슬’, ‘가는 비’, ‘단비’(『개역』)
 ‘비’, ‘소나기’, ‘이슬’, ‘가랑비’(『표준』)
 ‘빗방울’, ‘이슬’, ‘소나기’, ‘가랑비’(『공동』)

(1) 『표준』은 ‘이슬’과 ‘소나기’의 순서를 도치시키고 있다.

(2) 세 번째 단어인 『개역』의 ‘가는 비(טַעֲמִירִים)’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난다(hapax legomenon).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의 어근이 ‘머리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가랑비(gentle rain)’로 번역하고 있다(Driver, Reymond, RSV, NAS, JPS).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어근(טַעַר)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영상이므로 ‘격렬하고, 무서운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드럽고, 땅을 적시는 영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실 70인역과 별게이트는 ‘무서운 폭우-폭풍’으로 본다. 이 단어의 어근과 연관하여 페쉬타에서 ‘바람’으로, 타르쿰은, ‘비바람’으로 보고 있다.¹⁹⁾ 따라서 우리는 ‘폭우’(shower, NIV, NJB, Moran, Jaussen, Sanders)로 보고 ‘단비’로 번역하였다.²⁰⁾ 여기에서의 ‘폭우’는 파괴적인 차원 보다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단비’로 이해된다.²¹⁾

(3) 네 번째 단어인 ‘소나기(רַבִּיבִים)’는 우리 말 성경에서 ‘단비’(『개역』), ‘가랑비’(『표준』, 『공동』)와 포켈만(J. P. Fokkelman)에 의하여, ‘물방울(droplets)’로 번역되고 있지만, ‘폭우 성 소나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내가 야웨의 이름을 선포하리니²²⁾

17) J. P. Fokkelman, *Major Poems of the Hebrew Bible: at the Interface of Hermeneutics and Structural Analysis*, vol. 1 (Assen: Van Gorcum, 1998), 63.

18) 3, 4구의 두 비는 ‘소나기’와 ‘가랑비’(『공동』)로 제시된다. 『표준』은 어순을 수정하였다. 시 72:6의, ‘적시다(רַבִּיבִים)’참조.

19)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는 ‘비’와 ‘바람’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20) 모란은 본문 속에 “지하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관찰하며, 샘과 개울이 솟아나, 땅을 적서 초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연한 풀에 솟아 오르는 물, 채소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이”로 번역한다. W. R. Moran,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317-320.

21)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140. 정중호는 ‘폭풍우(storm)’로 번역하며, 이 번역은 “이 시의 폭력적인 이미지와 잘 조화 된다”고 보나, 현재의 문맥에서 ‘폭력’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22) 여기에서 ‘부르다’는 ‘선포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 상반절의 ‘야웨’와 하반절의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형식을 상기시켜준다(사 40:3). 따라서 상·하반절은 좋은 대구를 만들고 있다.

(2) 마소라 사본의 ‘내가 야웨의 이름을 선포하리니’는 사마리아 오경에서 전치사가 베틀(ב)첨가된 형식으로 나타난다(הַיְהוָה בְּשֵׁם יְהוָה). 이 구문은 ‘내가 야웨의 이름으로 간청하다’(왕상 18:24-26; 왕하 5:11; 시 116:4 등)와 ‘야웨의 이름을 선포하다’는 두 가지 용례로 나타난다(출 33:19; 34:5; 사 12:4 등). 마소라 사본의 형태(הַיְהוָה בְּשֵׁם יְהוָה) 역시 ‘간청하다’(애 3:55)와 ‘선포하다’(룻 4:14)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므로, 우리는 현재의 형태를 따라 ‘야웨의 이름을 선포하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시 99:6), ‘내가 야웨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형(volitive)’으로 이해된다.

(3) 하반절에서 ‘영광을 돌려라’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는 정상적인 용어인 ‘영광(כְּבוֹד)’이 아니라, ‘위대함(גְּבוּרָה)’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자주 대구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신 5:24; 대상 29:12; 예 5:11; 겔 31:18), ‘위엄을 돌려라’보다는 ‘영광을 돌려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4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은 공평하시다.
 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가 없으시며,
 그는²³⁾ 의롭고 정직하시다.

(1) 4절은 ‘명사형’ 문장으로서, 3절의 ‘동사형 문장’과 구별된다. 즉, “이 절의 내용은 정적이며, 이것은 시간을 고도로 제한해 준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시간적이다.”

(2) ‘그는 반석이다’에서 원문은 ‘반석’ 만으로 나타나므로, 문장이 되지 않으며 호격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JPS, NAS, RSV, Fokkelman, 정중호, ‘반석!’), 서술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NIV, NJB).²⁴⁾ ‘반석’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4, 15, 18, 30, 31, 37 in MT, SP). 그러나 70인역은 여기와 다른 구약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으로 번역한다.²⁵⁾ 왜냐하면, 70인역자는 당

23) 마소라 사본에서 ‘그는(הוא)’은 강조되어 문미(文尾)에 나타나므로 번역에 반영하였다.

24) 문법적으로 ‘반석’은 ‘고리형(casus pendens)’을 이루고 있으며, 삼하 22:31(//시 18:31)에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25) 페쉬타와 탈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히브리어 셀라(שֵׁלָה)도 마찬가지이다.

대의 ‘바위 숭배’ 관습과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연현상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였다.

(3) 4절의 전반부 1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을, 후반절 2행은 ‘하나님의 성격’을 말해준다는 샌더스(P. Sanders)의 분석은 좋아 보인다.²⁶⁾

(4) 3구에서 ‘진실한(תָּמִים)’과 ‘불의(רָע)가 없다’는 구약성서에서 가끔 평행을 이루며(사 61:8; 겔 18:8; 말 2:6),²⁷⁾ 4구의 ‘의롭다’와 ‘정직하다’는 매우 빈번하게 평행을 이룬다(신 32:4; 시 11:7; 32:11; 33:1; 64:11; 97:11; 112:4; 119:137; 140:14; 잠 17:26; 21:18; 29:27; 사 26:7; 호 14:10; 합 2:4).

5 그들이 그에게 악한 짓을 하니 그의 자녀가 아니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1) 4절에서 하나님이신 ‘그’가 소개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들’이 나온다. 이리하여 주님의 정직하심과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대조되고 있다.

(2) 이 절의 구문은 매우 어려우며, 역본마다 다르고 수많은 수정안들이 제시되었다.²⁸⁾ 마소라 사본에서는 ‘~이 아니다(לֹא)가 앞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가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다. // 그의 자식들은 그들의 흠이다”로 읽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소라 학파도 이 절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²⁹⁾

(3) 우리는 이 시에서 ‘부정(否定) 모티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의 자녀가 아니다’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⁰⁾

(4)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첫 마디는 ‘부패함’이다(רָעָה). 이 단어는 잠언에서는 ‘온전함’과 대조되는 ‘부패성’을 말한다. 이 동사는 피엘형으로서 부사적인 용법을 가지므로,³¹⁾ ‘왜곡되고,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변질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5) ‘구부러지다(כָּוָה)’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볼 때, ‘신체적인 흠(blemish,

26)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144.

27) 『개역』의 ‘진실무망’은 멋있는 사자성어로서 긍정과 부정을 함께 담고 있다.

28) 사마리아 오경은 לֹא בָנָיו מוֹמֵתָא “Not on him the children of blemish brought ruin...”으로 읽으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70인역은

ἠμάρτωσαν οὐκ αὐτῷ τέκνα μωμητά, לֹא בָנָיו מוֹמֵתָא

으로 읽어 동사형은 사마리아 오경과, 어순은 마소라 사본과 일치하고 있다. 모든 사본과 역본에서 ‘그의 아들들’은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29)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145.

30) לֹא בָנָיו (5절), lo' chakam(6절), lo' 'eloah(17절), lo'-'emen(20절), lo'-'el(21절), lo'-'am(21절) 참조.

31) 예니(Jenni PiÁel 242f, 259f)는 ‘단도직입적으로 파괴적인(straightforwardly to ruin)’이란 뜻으로 이해한다. 말라기 2:8에서는 ‘언약을 파하다(בָּרַחַם מוֹמֵתָא)’는 뜻으로 사용된다.

defect)’을 가리킨다. 샌더스는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며,³²⁾ 바로 다음절과 뒤에 나오는 창조자의 영상에 어울릴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6b, 15b, 18a), 현재의 문맥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레 22:25에서 ‘결점이 있는 것(מְחֻשָּׁט)’과 ‘흠이 있는 것(מְחֻשָּׁט)’이 대구를 이룬다.³³⁾

6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야웨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는 너를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 첫 행을 시작하는 ‘야웨께(יְהוָה לְיְהוָה)’는 구문적으로 문장 머리에 위치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 즉, 주님은 5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접 이상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2) 제 3구를 시작하는 ‘~이 아니냐?(אִי לֹא)’는 3, 4구에 모두 걸리며, 첫 행의 ‘야웨께~하느냐(יְהוָה לְיְהוָה)’를 반향하여 준다.³⁴⁾

(3) 이 절에서도 ‘백성(עַם)’과 ‘아버지(אָב)’가 대구를 이룬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였다(בָּרָא, 3행)’. 이 동사는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이 절에서는 ‘창조하다’는 뜻이 가장 잘 어울린다. 이리하여 뒤따라 나오는 4행의 ‘만들다(בָּרָא)’와 ‘견고히 하다(בָּרָא)’와 좋은 대구를 이룬다.³⁵⁾ 이 세 단어가 한 절에 나타나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오직 여기뿐이다.³⁶⁾ 의미론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은 그를 ‘창조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한 아버지’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 즉, 청중과 독자들은 “이 백성이 그 아버지의 자식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4) 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첫 행의 ‘보답하다(שָׁבַד)’라는 접두어 동사 하나와 3-4행의 ‘창조하였다, 만들었다, 견고하게 하였다’는 세 개의 접미어 동사가 대

32) Akk. mummu A, ‘creator’(‘their creator’). CAD, M. 197.

33) 또한 이 단어는 ‘blameless(טָהוֹר)’와 대조를 이룬다(레 22:19, 21). 현재의 문맥에서 마지막 mem(מֶמ)은 부사적 용법을 갖는다(with blemish).

34) Stephen A. Geller, “The Dynamics of Parallel verse: a Poetic Analysis of Deut 32:6-12,” *HTR* 75 (1982), 40.

35) 음성학적으로 ‘창조하다(בָּרָא)’와 ‘견고히 하다(בָּרָא)’는 서로 유사성을 가지지만 구약성서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대구를 이룬다. ‘견고히 하다(בָּרָא)’에 나오는 마지막 눈은 ‘고대 목적격 형용사’로서 ‘부사적 의미’를 가진다.

36) ‘창조하다(בָּרָא)’와 ‘만들다(בָּרָא)’는 가끔 대구를 이루며(출 25:31; 37:17; 신 32:6; 왕상 14:15; 사 46:6), ‘만들다(בָּרָא)’와 ‘견고히 하다(בָּרָא)’는 빈번하게 대구를 이룬다(창 41:32; 출 8:22; 신 13:15; 17:4; 32:6; 왕상 2:24; 대상 15:1; 18:8; 28:7; 29:19; 대하 2:6; 12:14; 35:6, 16; 스 7:10; 욥 31:15; 42:8; 시 99:4; 101:7; 119:73; 잠 16:12; 20:18; 사 9:6; 45:18; 51:13; 렬 7:18; 10:12; 33:2; 44:19; 51:12, 15; 암 4:12).

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7 멀고 먼 옛날을 기억하여라.

대대로 이어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 보아라 그가 네게 대답해 줄 것이다.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1) 여기의 네 구에서 동사는 단수(זָכַר), 복수(בִּינֵנוּ), 단수(שָׁאַל), 복수(יִאֲמְרוּ)로 전환한다. 갑작스러운 수의 변화는 히브리어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2) 첫 구의 ‘날들(יָמִים)’이란 여성형 복수형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여기와 시 90:15), 대부분 남성형(yamim)으로 나타난다. 2행의 ‘해들(יָמִים)’은 좀 더 자주 나타나지만, 오직 시문에서만 나타나며(신 32:7; 예 3:8; 욥 16:22; 시 77:6, 11; 90:15; 잠 4:10; 6:10; 9:11; 24:33), 서북 셈어(우가릿, 암몬, 페니키아어)에는 여성복수형이 있다³⁷⁾

(3) 앞 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자식들이 몰랐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기억하다’와 ‘생각하다’는 지혜문학의 용어이다. 따라서 ‘묻다’와 ‘대답하다’가 자연스럽다. 마지막 동사 ‘말하다’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다(BDB, ‘be conspicuous’).

(4) 시간적으로는 ‘멀고 먼 옛날’과 ‘대대로 이어온 세월’이 평행을 이룬다. 여기에서도 ‘영원한(עָלְמָיִם)’이란 단어는 ‘지속성’을 가리킨다. 시인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시간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고 있다.

(5) 제 3구를 시작하는 ‘물어보라(שָׁאַל)’라는 동사는 4구에도 함께 걸리므로(double-duty) 번역에는 함께 반영해 주어야 한다.

8 지존자께서 열국들에게 기업을 나누어주셨을 때,³⁸⁾

인간들을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다.

(1) 8-9절에서 키워드는 ‘기업(קָנָה)’이다. 이 두 절은 ‘기업을 주실 때’로 시작하여(8절), ‘그의 기업’으로 마친다(9절).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עֲלֵיוֹן)’로서 세계지도를 그리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정황은 노아 홍수

37)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52.

38) 마소라 사본의 독법(בְּהִנְחָל)은 부정사 연계형이지만, 두 개의 히브리어 필사본과, 사마리아오경, 쿠파란사본에서는 절대형(בְּהִנְחָל)으로 읽고 있다.

후와 바벨탑 직후 나라들을 나누는 때로 설정하고 있다(창 10; 11:1-9).

(2) ‘지극히 높으신 자’는 우가릿 문헌에서 일반적인 신명이며,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신명이었다(창 14:18). 이 칭호는 이스라엘 신앙의 고대성을 강조해 준다(삼하 22:14//시 18:13). 주님의 주권은 우주적 성격을 지닌다.³⁹⁾

(3) 첫 행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개역』)의 시제는 과거로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는 ‘지존자께서 열국들에게 기업을 나누어주셨을 때’로 번역하였다.⁴⁰⁾

(4) 제 2행에서 ‘인간들(בְּנֵי אָדָם)’은 ‘인류’나 ‘인종’보다는 ‘인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중립적으로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서는 ‘열국’과 ‘민족들’이 평행을 이루지만, 이들을 꼭 ‘인종’으로 번역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여겨진다.

(5) 제 3행에서 마소라 사본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에 대하여 70인역 필사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천사들’로 읽고 있다(//4QDt^a 4QDt^b). 많은 고대 필사본과 역본들은 마소라 사본을 지지하고 있지만(SP, Targum Onkelos, Vul., Pesh) 대부분의 학자들은 70인역이 원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Duncan, Barrera, Tov, Skehan). 마소라 학파는 70인역의 개념을 신학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옛 독법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bn ’Im, ’sons of Ilu)’은 신적인 존재들이며, 그들은 구약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로 나타난다(시 29:1-2 등).⁴¹⁾ 현재 신명기의 본문에서 이들은 각자의 나라들을 개인소유(חֵלְקָם)로 갖고 있다. 그러나 야웨의 소유는 야곱이다.⁴²⁾

(6) 제 4행의 ‘나누셨다(נָתַן)’는 ‘나누십시오(jussive)’라는 문법적 형태로 나타

39) 아이스펠트는 여기에서 “엘은 후대에 잊혀진 만신전의 우두머리이며 야웨도 그에게 종속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나치다.

40) Driver(1952)에 따르면, ‘지존자께서 열국에게 기업을 나누어주셨을 때’는 ‘그가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을 때’와 평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민족들과 나라들을 나누셨을 때를 말한다고 본다.

41) 마소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70명으로 여겨졌다.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서도 70명, 창10장에서도 70명이다. 야곱의 후손들도 70명으로 나타난다(창 46장. 70명. 출 1:5. 신 10:22). 70은 서사시적 숫자이다.

42) 올브라이트는 8-9절을 묶어서 평행법으로 본다(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343.).

“지존자께서 열국에게 기업을 나누어주셨을 때,
인간들을 나누셨을 때,
그는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그러나 야웨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가 물려받은 영토이다.”

난다. 이것은 직설법(יָצַיִן)으로 수정해야 하며, 시제는 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형 yiqtol).⁴³⁾

9 야웨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가 물려받은 영토이다.

(1) 첫 구의 불변사(יָצַיִן)는 ‘강의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Gray).⁴⁴⁾

(2) ‘분깃’과 ‘물려받은 땅/영토’가 평행을 이루며, ‘야곱’과 ‘그의 백성’이 도치되어 짝을 이루고 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즉, 주님의 소유권은 이 세상의 유산처럼 오래된 것이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물려받은 영토’는 ‘배당된 땅’을 의미한다(시 78:55; 105:11; 대상 16:18, HALOT).

(3)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은 이스라엘을 첨가하여 문장 끝에 둔다.

야웨의 분깃은 그의 백성 야곱이며
그가 물려받은 영토는 이스라엘이다.

BHS 편집자는 이 전통을 따라 읽을 것을 제안하지만, 이 독법은 이 절의 동심구조(A:B//B':A')를 깨뜨리고 있으며, 쿠퍼란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⁴⁵⁾

여기에서 첫 두 절(10-11절)은 9개의 동사로 문장을 이어가며, 뒤따르는 세 절(12-14절)에서는 명사가 중심을 이룬다.

그는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시고
울부짖는 황량한 혼돈의 땅에서(만나시고),
그를 감싸고 돌보시며
그의 눈동자 같이 그를 지켜주셨다.

43) “시에서 이 고대의 과거형은 waw-consecutive 밖에서 나타난다. 즉, 이것은 단번에 일어난 과거형(preterital) yiqtol로서,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건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 Paul Jou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 Muraoka, trans.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1), 388. 레이니는 엘-아마르나 서신에 있는 이 용법을 ‘yaqtul preterite’라고 한다. A. F. Rainey, “엘-아마르나 서신 가나안어에 비추어본 고대 히브리어의 접두형 활용,” 박미섭 역, *Hermeneia Today* 20 (2002), 48. 드라이버(G. R. Driver, “Deuteronomy 32:8,” *VT* 2 (1952), 356-357.)는 ‘나누셨을 때’를 ‘그가 홀으셨을 때’ 혹은 ‘심으셨을 때’로 본다. 즉, 하나님이 곡식의 씨앗을 뿌리듯이 그들을 나누셨다. 이것은 70인역의 전통과 일치한다. (//LXX, ὡς διέσπειρεν υἱοὺς Ἀδάμ when he separated the sons of Adam).

44) “앞 절의 부정과 대립되지 않는 반의적 불변사(adversative ki, Tsevat)이다.

45) 4QDeut^a에 따르면, 32:9-10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יְהוָה] 1
יְהוָה ¹⁰] 2

(1) 이 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가 발견하였다(הִמָּצָא)’⁴⁶⁾에 대해 사마리아 오경은 ‘그가 그를 강하게 하였다(הִמָּצָאָה He strengthened him)’로 70인역은 ‘그가 스스로 충족하도록 하였다(αὐτάρκησεν αὐτὸν he made him self-sufficient)’로 읽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은 호세아 9:10에도 나타난다.

(2) 원문에서 ‘그를 만나시고’는 첫 구에 나타나지만, 우리말 어순 때문에 둘째 구에 두었다.

(3) 제 2구에서 ‘울부짖다(נָחַח)’라는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나며, 명사형(נִחִיחַ)은 ‘짐승의 울부짖음’을 뜻한다(사 15:8; 렘 25:36; 습 1:10; 숙 11:3). 따라서 우리말 번역들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로 제시한다(『개역』, 『표준』). 그렇지만, ‘광야가 울부짖는 모습’은 더욱 시적인 느낌을 준다.⁴⁷⁾ 즉, 귀신의 환각이 나타나는 듯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그들을 돌보셨다.

(4) 3-4행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인, ‘감싸다, 돌보다, 지키다’는 군사적인 배경을 가질 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독수리 영상과도 이어진다.

11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휘저으며
그 새끼들 위에서 퍼덕거리며,
그의 날개를 펼치고 새끼를 받으며
그의 깃털 위에 엮어 나르듯,

(1) 10절 마지막 구인 ‘눈동자 같이’는 여기에서 ‘독수리 같이’로 연결된다. ‘독수리’는 문장 첫 머리에 나옴으로써, 강력한 새의 영상이 이 절을 지배하게 한다. 또한 공간 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앞 절의 ‘사막’이 여기에서는 ‘공중’으로 넘어간다.

(2) 제 1행의 ‘(그 둥지를) 휘젓다(הִיָּזַח)’에 대하여 70인역과 우가릿 문헌에 근거하여 ‘보호하다’로 읽는 학자들이 있으나,⁴⁸⁾ 현재의 문맥에는 잘 어울리지 않으며, ‘휘젓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3) 여기에서 ‘너풀거리다(『개역』)’라는 단어가 흥미롭다. 이 단어(הִנָּחַח)은 창세기 1:2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짐승들은 자신의 새끼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서 ‘퍼덕거리다’.

46) Paul Jou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388. ‘he found him.’

47) ‘hallucinatory sounds in the desert’(HALOT).

48)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164.

12 야웨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다.

(1) 이 절에서는 ‘홀로(הַיְהוָה)’와 ‘없다(אֵין)’가 대조를 이룬다.

(2) ‘다른 신(אֱלֹהִים אֲחֵרִים)’은 ‘낮선 신’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웨는 ‘낮설지 않은’ 오래된 신이지만, ‘다른 신들’은 새롭게 나타난 신으로서 ‘얼굴을 잘 모르는 신’이다.⁴⁹⁾

(3)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오직 ‘야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וַיְהַדְּרֵם ה' יְהוָה 출 15:13). ‘인도하다’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는 모습이다(시 103:4-5 신 31:18; 출 3:12참조).

13 그로 하여금 높은 땅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들판의 소산(소출)을 먹게 하시고,⁵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 제 1구에서 ‘그로 하여금 높은 땅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동일한 구가 이사야 58:14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명기의 문맥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Driver). 70인역은 “그가 땅의 힘으로 그들을 키웠다”로 제시함으로써, 2-4구와 평행을 만들고 있다.⁵¹⁾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므로, 이 구절은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첫 구에서 ‘높은 땅을 타고 다니게 하다’에 대하여 라이트(Wright)는 크로스(Cross)를 따라 ‘땅’을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Mot)’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고 “그가 그로 하여금 땅의(신의) 등을 타고 다니게 하였다”로 번역하지만, 스케한(P. W. Skeha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특별히 돌본 것을 가까운 문맥에서 말하고 있으므로,⁵²⁾ ‘땅’을 의인화된 하나님의 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땅’으로 보아

49) ‘다른 신이 없었다’는 16-18절을 미리 예시하며, 39절과는 짝을 이룬다.

50) 마소라 사본은 ‘그가 먹었다(אָכַל)’로 읽고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탈군은 모두 ‘그가 그를 먹였다(אָכַל אֶת-בְּרֵיתוֹ)’로 읽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본다.

51) 70인역(ἀνεβίβασεν αὐτοὺς He brought them up on the strength of the land)은 사역형의 의미를 가진다.

52) P. W. Skehan, “Structure of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Deut 32:1-43),” *CBQ* 13 (1951), 46.

야 한다”.⁵³⁾

(3) 모란(W. R. Moran)은 여기에서 ‘타다(טָדָה)’는 동사가 ‘수평적 운동이라기 보다 수직적 운동’을 가리키며, 결코 ‘어느 장소를 가로질러 가다(a place ridden across)’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본다.⁵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산 지역의 고지로 접어들어간 사건으로 해석한다.

(4)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다’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 준다. 옛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 이제 ‘물’이 아니라, ‘꿀’을 얻는다.

(5) ‘단단한 반석에서 나온 기름’은 ‘올리브유’를 가리킨다. 올리브나무는 ‘굳은 반석’에서도 잘 자란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신 8:15). 이제는 더 좋은 ‘기름’까지 주신다. 땅의 자원으로 넘치게 주신다.

(6) ‘꿀’과 ‘기름’은 자주 대구를 이루면서 나타난다(신 8:8; 32:13; 렘 41:8; 겔 16:13, 19; 27:17).⁵⁵⁾

(7) 여기에서 ‘빨게 하다’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빨리다’라는 뜻과 같다. 이스라엘은 달콤한 것을 한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었다(사 66:11). 메마른 곳으로 여긴 곳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14 영긴 소젖과 양의 젖을⁵⁶⁾ (빨게 하시고)

어린 양의 고기와⁵⁷⁾ 함께 먹게 하시며,

바산의 양과 염소를 지극히 기름진 밀과 함께 주시며,

붉은 햇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⁵⁸⁾

(1) 이 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젖, 고기, 곡식, 포도주로 열거되고 있다. 먼저 ‘젖’에 있어서는 소젖과 양젖이 주어진다. 첫 구에는 동사가 없으므로, 바로

53) 스케한이 여기에서 ‘타다(טָדָה)’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바로 앞에 독수리 영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10-12절). 그가 볼 때,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시적이지만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 사건에 일치한다.

54) W. R. Moran,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323. 우가릿 문헌에서, “망대로 오르라. 성벽의 어깨로 오르라”를 보라(사 58:14참조).

55) 동일한 대구가 우가릿 문헌에도 나타난다. “하늘은 기름을 내리고 와디에는 꿀이 흐른다”(The heavens rained oil, the wadis ran with honey). *KTU* 1.6, iii.6-7, 12-13.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171.

56) 이 단어(זָבַח)는 뒤에 나오는 ‘고기(בָּשָׂר)’와 발음이 매우 유사하며, ‘젖’을 뜻한다.

57) 여기에 זָבַח는 은유적인 의미로서 ‘최고로 맛있는 고기’로 이해될 수 있다.

58) 마지막 구 끝에 사마리아 오경(שְׁבַע עֵקֶב יִשְׂרָאֵל(7))과 70인역은 ‘이와 같이 야곱이 먹고 배불렀다’(καὶ ἔφαγεν Ιακωβ καὶ ἐνεπλήσθη)를 첨가한다.

앞 절에 나온 ‘빨게 하다’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제 2구를 시작하는 ‘고기(בשר)’는 3구의 ‘어린 양,’ ‘바산의 양과 염소’를 모두 이끌고 있다.

(3) ‘지극히 기름진 밀’은 최고급 밀이다(사 34:6참조).

(4) ‘포도즙의 붉은 술’(『개역』)은 ‘거품이 이는 헛포도주’를 가리키며(시라 31/34:30; 시 75:9 참조, HALOT), 우리는 ‘붉은 헛포도주’로 번역하였다. ‘포도주(יַיִן)’와 ‘포도즙(יַיִן עֲנָבִים)’은 구약성서에서 가끔 평행을 이룬다(창 49:11; 민 6:3; 느 13:15).

15 그러나 여수룬이 살찌자 뒷발질 하였다.

너는 살찌고⁵⁹⁾ 몸이 불어나고 배불리 먹었다.⁶⁰⁾

그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업신여겼다.⁶¹⁾

(1) 이 절에는 8개의 동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과 그의 실제적인 행동은 매우 대조적이다. ‘여수룬(יָשָׁר ‘the Upright’)’은 이스라엘의 ‘애칭’으로서(신 33:26; 사 44:2), ‘바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으며, 음성학적으로 ‘반석(בָּרָא)’과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이러니’로 사용된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요 해방자였는데, 여수룬은 스스로 자만에 빠진다.

(2) 제 1행에서 ‘살찌다(שָׁבַע)’와 ‘발로 차다(כָּבַד)’는 동사는 오직 여기에서 만 평행을 이루고 나타나며, 후자는 고집이 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가 잘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고분고분 하기보다,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뒷발로 차서 치명상을 입힌다. ‘발로 차다’는 은유적으로는 ‘멸시하다’라는 뜻을 내포한다(삼상 2:29 렘 2:17, HALOT). 이런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뒷발질하다’는 마지막 구에 나오는 ‘(그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업신여겼다(כָּבַד Piel)’와 매우 좋은 짝을 만들어주므로, 수준 높은 대구로 볼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먹다(אָכַל)’는 ‘배부르다(שָׂבַע)’와 평행을 이룬다(출 16:3, 8, 12; 레 25:19; 26:5, 26; 신 6:11; 8:10, 12; 11:15; 14:29; 23:25; 26:12; 31:20; 룻 2:14; 시 22:27; 59:16; 78:25, 29; 81:17; 잠 1:31; 13:25; 25:16; 사 9:19; 44:16; 렘 46:10; 호 4:10; 율 2:26; 미 6:14). 따라서 15절은 13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9) 이 절에서 ‘살찌다(שָׁבַע)’가 두 번 반복된다.

60) 이 동사(שָׂבַע)는 ‘배불리 먹다’(BDB, 『개역』, 『표준』)와 ‘반역하다’(HALOT, 임승필)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61) ‘업신여기다(כָּבַד)’의 동사형태(Piel)는 ‘동사의 동작(verbal action)’을 말해준다(dibber, qillel).

16 그들은 낮선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를 격노하게 하였다.

(1) 이 절 역시 접두어 변화를 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 시제로 보아야 한다 (contra Albright, 현재형 처리).

(2) 하반절의 ‘가증한 것’은 ‘역겨운 짓’(『표준』, 임승필)으로 번역된다. 물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가리키지만, 상반절의 ‘낮선 신’과 대구를 이루므로, 이방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우상’, 신 7:26; 왕하 23:13; 사 44:19 등).

(3) 올브라잇은 이 절에서 ‘반복(repetition)’에 주목하면서(21절과 함께), 제 1행에는 ‘신’을, 2행에는 ‘이방’을 삽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그들은 낮선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방의] 가증한 것으로 그를 격노한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평행법에는 ‘이중기능(double-duty)’이 있기 때문에, 1, 2행에 빠진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아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17 그들은 하나님에 아닌 마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최근에 등장한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에게 제사하였다.⁶³⁾

(1) 이 절 역시 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켰는지 제시된다.

(2) ‘마귀’라는 번역은 70인역(δαίμονιους)을 따른 것이며, ‘잡신’(임승필)이나 ‘귀신’(정중호)보다 나아 보인다.⁶⁴⁾ 현재의 본문에서 ‘마귀(מַגִּיד)’는 아카드어 (šedu)에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히브리어에서는 ‘파괴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의 본문에서는 마귀가 신성을 갖고 있음

62) 그는 운율에 근거하여 ‘수직적 중자탈락’(vertical haplography)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344.

63) 원문에서 ‘제사하다’는 동사는 첫 행에 나오지만, 우리 말 어법을 위해 마지막으로 가져왔다. 4QDeut^{kl}도 17-18절에서 마소라 사본과 동일한 시작을 하고 있다.

]יִזְבְּחוּ לַשְּׂרִימִים ¹⁷⁾	1
]מִקְרִין בַּאֵין	2
]חֲשֵׁה ⁽¹⁸⁾ כַּח	3

64) ‘귀신’이라는 칭호는 유교의 경전에서 ‘상제’와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을 확실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를 숭배하며, 자신의 자식까지 바쳤다(시 106:37; 신 12:31참조).

(3) ‘최근에 나타난’이란 구(בְּקִרְבָּנוֹ)는 ‘가까운 곳에서 온(from nearby)’이란 뜻을 가질 수 있으나(신 13:7-8),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⁵⁾

(4) 제 4행에 나오는 ‘두려워하다(מִדְּרֹאָה)’라는 마지막 단어가 강하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는 무시되었으며, 윙클러는 ‘마귀’를 의미하는 유사한 단어(se’irim)로 수정하여 제 1행의 ‘마귀’와 평행을 이루게 한다.⁶⁶⁾ 올브라잇은 70인역을 따라서 ‘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두려워하다’가 더 문맥에 어울린다(רָעַח I, ‘to dread’, ‘to fear’).

18 너를 낳은 반석을 무시하고
너를 해산한 하나님을 잊었다.

(1) 제 1구의 ‘낳다’와 2구의 ‘해산하다’는 자주 대구를 이룬다(삿 11:1; 대상 26:6; 욥 15:7; 39:1; 시 48:7; 90:2; 사 13:8; 23:4; 26:17f; 45:10; 54:1; 66:7f; 렘 6:24; 22:23; 50:43; 미 4:9f). 첫 동사는 ‘아버지’의 모습을(창 4:18; 10:8; 잠 17:21; 23:22; 고전 1:10), 후자는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특히 ‘산모의 고통’을 잘 드러내어 준다. 여기에 ‘부모’의 영상이 있다(사 45:10; 51:2; 63:15; 렘 2:27; 31:20 등).

(2) ‘잊었다’라는 동사(שָׁחַח)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나며(hapax legomenon), 사마리아 오경과 여러 필사본들에는 모음에 변화를 주고 있다(שָׁחַח). 또한 이 단어의 어근에 있어서도 그 동안 שָׁחַח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나, 최근에는 ‘잊다(נָשַׁח)’라는 또 다른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HALOT; ug. nšy, ‘to forget’ KTU 1:5:i.26).

* 주요어

본문 번역, 본문비평, 히브리 고시,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65)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85.

66)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344.

〈표 1〉 신 32:1-43에 대한 고대 사본, 역본, 비평본의 절과 행 분류체계

행	절	행	Leningrad	행	BHS	행	Aleppo	절	SP	LXX	절	Qumran	Qumran사본번호	
1	32:1	1	הַאֲזִינוּ	1	Leningrad 사본과 동일함.	1	הַאֲזִינוּ	32:1	הַאֲזִינוּ	προσεχε				
2	32:1	2	יֵעָרֶף	2		2	יֵעָרֶף							
3	32:2	3	כְּשַׁעִירִים	3		3	כְּשַׁעִירִים	32:2	יֵעָרֶף	προσδοκασθω				
4	32:3	4	כִּי	4		4	כִּי	32:3	כִּי	οτι				
5	32:4	5	הַצּוּר	5		5	הַצּוּר	32:4	הַצּוּר	θεος				
6	32:4	6	אֵל	6		6	אֵל							
7	32:5	7	שַׁחַת	7		7	שַׁחַת	32:5	שַׁחַתוּ	ημαρτοσαν				
8	32:6	8	הַלִּיהוּה	8		8	הַלִּיהוּה	32:6	הַלִּיהוּה	ταυτα				
9	32:6	9	הֲלֹא	9		9	הֲלֹא							
10	32:7	10	זָכוֹר	10		10	זָכוֹר	32:7	זָכְרוּ	μνησθητε				
11	32:7	11	שֶׁאֵל	11			[שאל 10행 위치]							
12	32:8	12	בַּהֲנַחַל	12		11	בַּהֲנַחַל	32:8	בַּהֲנַחַל	οτε				
13	32:8	13	יִצַּב	13		12	יִצַּב							

* SP는 Samaritan Pentateuch를 말함.

〈표 1〉 계속

행	절	행	Leningrad	행	BHS	행	Aleppo	절	SP	LXX	절	Qumran	Qumran사본번호	
14	32:9	14	כי	14	Leningrad 사본과 동일함.	13	כי	32:9	כי	καὶ	32:9	[נה]לתו	4QDeut ^d	
15	32:10	15	ימצאהו	15		14	ימצאהו	32:10	יאמצהו	αυταραησειν	32:10	[שמ]ן	Frg.3 Deut 32:9-10(?)	
16	32:10	16	יסובבנהו	16		15	יסובבנהו							
17	32:11	17	כנשר	17		16	כנשר	32:11	כנשר	ως				
18	32:11	18	יפרוש	18			יפרושע 10행 위 치]							
19	32:12	19	יהוה	19		17	יהוה	32:12	יהוה	κυριος				
20	32:13	20	ירכיבהו	20		18	ירכיבהו	32:13	ירכבהו	ανεβιβασειν				
21	32:13	21	ויניקהו	21		19	ויניקהו							
22	32:14	22	חמאת	22		20	חמאת	32:14	חמת	βουτυρον				
23*	32:14	23	ואילים	23		21*	בני=Dotan							
24	32:14	24	ודם	24		22	ודם							
25	32:15	25	שמנת	25		וישמן	23	שמנת	32:15	יאכל	καὶ			
26	32:15	26	וינבל	26		וימש	24	וינבל						
27	32:16	27	בתעבת	27	יקנאהו	25	בתעבת	32:16	יקנאהו	παρωχυσεν				

〈표 1〉 계속

행	절	행	Leningrad	행	BHS	행	Aleppo	절	SP	LXX	절	Qumran	Qumran사본번호
28	32:17	28	אלהים	28	יזבחו	26	אלהים	32:17	יזבחו	εθυσαυ	32:17	יזבחו	4QDeut ^{k1} Frg.3 Deut 32:17-18
29	32:17	29	לא	29	חדשים	27	לא						
30	32:18	30	וחשכח	30	צבר	28	ותשכח	32:18	צור	θεου	32:18	[חש]כח	
31	32:19	31	מכעס	31	וירא	29	מכעס	32:19	וירא	καυ			
32	32:20	32	אראה	32	ויאמר	30	אראה	32:20	ויאמר	καυ			
33	32:20	33	בנים	33	כי	31	בנים						
34	32:21	34	כעסוני	34	הם	32	כעסרני	32:21	הם	αυτοι			
35	32:21	35	בגוי	35	ואני	33	בגוי						
36	32:22	36	ותיקד	36	כי	34	ותיקד	32:22	כי	οτι	32:22	כיא	4QDeut ^{k1} Frg.4 Deut 32:22-23
37	32:22	37	ותלהט	37	וחאכל	35	וחלהט						
38	32:23	38	חצי	38	אספה	36	חצי	32:23	אספה	στυαξω	32:23	[חצי]	
39	32:24	39	וקטב	39	מזי	37	וקטב	32:24	מזה	τηκομενοι	32:24		
40	32:24	40	עם	40	ושן	38	עם						

〈표 1〉 계속

행	절	행	Leningrad	행	BHS	행	Aleppo	절	SP	LXX	절	Qumran	Qumran사본번호
41	32:25	41	ומחדרים	41	מחוץ	39	גם [41-42행 포함]	32:25	מחוץ	ἐξωθεν	32:25		4QDeut ^{k1} Frg.5 Deut 32:25-27
42	32:25	42	יננק	42	גם							שׁיבה[
43	32:26	43	אשביתה	43	אמרתי	40	אשביתה	32:26	אמרתי	εἶπα	32:26	אמרתי	
44	32:27	44	פן	44	לולי	41	פן	32:27	לו	εἰ	32:27		
45	32:27	45	ולא	45	פן	42	ולא						
46	32:28	46	ואין	46	כי	43	ואין	32:28	כי	οτι	32:28		
47	32:29	47	יבינו	47	לו	44	יבינו	32:29	ולא	ουκ	32:29		
48	32:30	48	ושנים	48	איכה	45	ושנים	32:30	איך	πως	32:30		
49	32:30	49	ויהוה	49	אם	46	ויהוה						
50	32:31	50	ואויבינו	50	כי	47	ואויבינו	32:31	כי	οτι	32:31		
51	32:32	51	ומשדמות	51	כי	48	ומשדמות	32:32	כי	εκ	32:32		
52	32:32	52	אשכלות	52	ענבמו	49	אשכלות						
53	32:33	53	וראש	53	חמת	50	וראש	32:33	חמת	θυμος	32:33		
54	32:34	54	חתום	54	הלא	51	חתנם	32:34	הלוא	ουκ	32:34		
55	32:35	55	לעח	55	לי	52	לעת	32:35	ליום	εν	32:35		
56	32:35	56	וחש	56	כי	53	וחש						

〈표 1〉 계속

행	절	행	Leningrad	행	BHS	행	Aleppo	절	SP	LXX	절	Qumran	Qumran사본번호
57	32:36	57	ועל	57	כי	54	ועל	32:36	כי	οτι	32:36		
58	32:36	58	ואפס	58	כי	55	ואפס						
59	32:37	59	צור	59	ואמר	56	צור	32:37	ואמר	καα	32:37		
60	32:38	60	ישתו	60	אשר	57	ישתו	32:38	אשר	εω	32:38	[אשר]	4QDeut ^d Frgs.2-5i Deut 32:37-41c
61	32:38	61	יהי	61	יקומו	58	יהי						
62	32:39	62	ואין	62	ראו	59	ואין	32:39	ראו	δεδε	32:39	[ראו]	
63	32:39	63	מחצתי	63	אני	60	מחצתי						
64	32:40	64	כי	64	Leningrad 사본과 동일함.	61	כי	32:40	ואין	οτι	32:40	כי	
65	32:41	65	אם	65		62	אם	32:41	אם	οτι	32:41		
66	32:41	66	אשיב	66		63	אשיב						
67	32:42	67	אשכיר	67		64	אשכיר	32:42	אשכיר	μεθυσω	32:42	אשכיר	
68	32:42	68	מודם	68	65	מודם							4QDeut ^d Fig.5ii Deut 32:41d-43
69	32:43	69	הרנינו	69	66	הרנינו	32:43	הרנינו	ευφρανητε	32:43	הרנינו		
70	32:43	70	ונקם	70	67	ונקם							

* 참고문헌

-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2.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두란노, 1996.
- 정중호, “신32:1-52 사역,” 『신명기: 역사비평주석』, 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605-636.
- Albright, William Foxwell,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VT* 9 (1959), 339-346.
- Brueggemann, Walter, “Social Criticism and Social Vision in the Deuteronomic Formula of the Judges [Judg 3:12; 4:1-2; 6:1; Deut 32],” J. Jeremias and L. Perlitt, eds., *Die Botschaft und Die Bo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 Cassuto, U., “The Song of Moses (Deu 32:1-43),” *Biblical and Oriental Studies*, vol. 1, Jerusalem: Magnes Press; Hebrew University, 1973.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Crenshaw, James L., “Wdorek al-bamotê’ares. [Amos 4:13; Mic 1:3; Dt 32:13a; 33:29b; Job 9:8; Hab 3:15,19a],” *CBQ* 34 (1972), 39-53.
- Cross, F. and Freedman, D. N., *Early Hebrew Orthography: A Study of the Epigraphic Evidence*, AOS 3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2, 45-60.
- Cutter, William., “Wrestling Lonely [Jacob in Gen 32, Moses in Deut 32],” *Orim* 3 (1987), 125-126.
- Dahood, Mitchell Joseph, “Northwest Semitic Notes on Dt 32:20,” *Bib* 54:3 (1973), 405-406.
- Driver, Godfrey Rolles, “Deuteronomy 32:8,” *VT* 2 (1952), 356-357.
- Eissfeldt, O., *Das Lied Moses Deuteronomium 32:1-43 und das Lehrgedicht Asaphs Psalm 78 samt einer Analyse der Umgebung des Mose-Liedes*, Berlin: Akademie-Verlag, 1958.
- Fokkelman, J. P., *Major Poems of the Hebrew Bible: at the Interface of Hermeneutics and Structural Analysis*, Vol. 1, Assen: Van Gorcum, 1998.
- Geller, Stephen A., “The Dynamics of Parallel verse: a Poetic Analysis of Deut 32:6-12,” *HTR* 75 (1982), 35-56.
- Greenfield, Jonas C., “Smitten by Famine, Battered by Plague (Deuteronomy 32:24),” J. Marks and R. Good, eds., *Love &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Guilford, Conn.: Four Quarters Pub. Co., 1987.

- Hidal, Sten., "Some reflections on Deuteronomy 32,"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XI* (1978).
- Janzen, J. Gerald., "The root pr in Judges 5:2 and Deuteronomy 32:42," *VT* 39 (1989), 393-406.
- Knight, G. A., *The Song of Moses: A Theological Quar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 Knowles, Michael P.,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Unusual Imagery for God in Deuteronomy 32," *VT* 39 (1989), 307-322.
- Kooij, Arie van der, "The Ending of the Song of Moses: on the pre-Masoretic Version of Deut 32:43," F. García Martínez and others, eds., *Studies in Deuteronomy*, 1994.
- Krause, Alfred E., "Historical Selectivity: Prophetic Prerogative or Typological Imperative?" A. Gileadi, ed., *Israel's Apostasy and Restoration*, 1988.
- Lust, Johan, "For I Lift up my Hand to Heaven and Swear: Deut 32:40," F. García Martínez and others, eds., *Studies in Deuteronomy*, 1994.
- Luyten, J., "Primeval and Eschatological Overtones in the Song of Moses (Dt 32:1-43)," N. Lohfink, ed., *Das Deuteronomium*, 1985.
- Moran, W. R.,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Bib* 43 (1962), 317-327.
- Mendenhall, George E., "Samuel's 'broken rîb': Deuteronomy 32," J. W. Flanagan, ed., *No Famine in the land*, 1975.
- Mihaly, Eugene., "A Rabbinic Defense of the Election of Israel: An Analysis of Sifre Deuteronomy 32:9, Pisqa 3 12 [Hebrew texts]," *HUCA* 35 (1964), 103-143.
- Peels, Hendrik G. L., "On the Wings of the Eagle (Dtn 32,11): An Old Misunderstanding," *ZAW* 106:2 (1994), 300-303.
- Perlitt, Lothar, "Priesterschrift im Deuteronomium?" *ZAW* 100 (1988), 65-88.
- Rainey, A. F., "엘-아마르나 서신 가나안어에 비추어본 고대히브리어의 접두형 활용," 박미섭 역, *Hermeneia Today* 20 (2002), 48-69.
- Reichert, Andreas., "The Song of Moses(Dt 32) and the Quest for Early Deuteronomic Psalmody," *Proceedings of the Nin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The Magnes Press, 1988.
- Robertson, D. A.,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Cambridge, Mas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72.

- Sanders, P.,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New York: E. J. Brill, 1996.
- Skehan, Patrick W., "Structure of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Deut 32:1-43)," *CBQ* 13 (1951), 153-163.
- Soggin, J. Alberto., "Jeremias 12:10a: eine Parallelstelle zu Deuteronomy 32:8/LXX?" *VT* 8 (1958), 304-305.
- Tigay, J. H., *Deuteronomy*, JPS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Vogt, Ernst., "Deut 32:37-43 ex Qumran," *Bib* 36:2 (1955), 264-265.
- Weitzman, Steven., "Lessons from the Dying: The Role of Deuteronomy 32 in its Narrative Setting," *HTR* 87 (1994), 377-393.
- Wiebe, John M., "The Form, Setting and Meaning of the Song of Moses [Deut 32:1-43]," *Studia Bib et Theologica* 17:2 (1989), 119-163.
- Winter, Paul., "Deuteronomy 32:8b: Genesis 1:26," *ZAW* 67:3-4 (1955), 292.
- Wright, George E., "Lawsuit of God; a Form-critical Study of Deuteronomy 32," B. W. Anderson, ed.,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honor of J. Muilenburg*, London: SCM press, 1962.

<Abstract>

Some Problems in the Translation of Archaic Hebrew Poe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ng of Moses in Deut 32:1-43 (Part I)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me major problems that arise in dealing with the translation of archaic Hebrew poe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songs such as Deut. 32:1-43. Previous Korean translations do not seem to deeply reflect the poetic character of the song. Neither has the unstable character of the textual transmission of the text been properly considered. Therefore we may list several introductory questions as follows: (1) Which ancient Hebrew manuscript will be chosen as the standard text for the new translation? There are major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verses and lines of the text between the Aleppo codex (70 lines) and the Leningrad codex (67 lin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seemingly original text between BHS and BHL (edited by A. Dothan). (2) How can we best reconstruct the poem in terms of verse, line, and cola and what will be the best format for our own translation in print form? (3) To help the reader recognize the flow of thought in this long poem, how should the overall structure be presented? (4) When there are prefix and suffix forms of verbs in the parallel cola, how can we determine the tense value of the two different verbal systems in a coherent way? (5) Which translation philosophy is to be utilized, 'formal correspondence' or 'semantic equivalence'? (6) Should the modern concept of diverse sentence marks such as question marks and quotation marks be used? After raising such questions, the writer presents a table which shows the different classifications of lines and verses in the Leningrad codex, the Aleppo codex, Samaritan Pentateuch, LXX, Qumran manuscripts and BHS. Then he gives his own translation of Deut. 32:1-18 together with philology, textual criticism, poetic analysis and short exegesis.